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NABO브리핑 NABO Briefing
2020. 10. 29. 제102호

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

추계세제분석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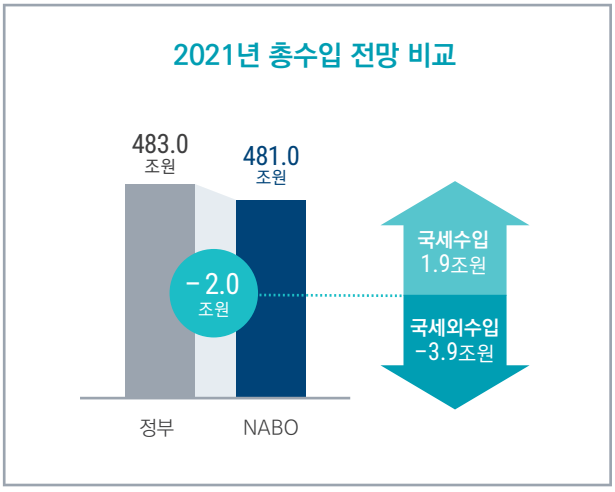
“2021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(483.0조원)보다 2.0조원 낮은 481.0조원으로 전망된다.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84.7조원으로 정부 예산안(282.8조원)을 1.9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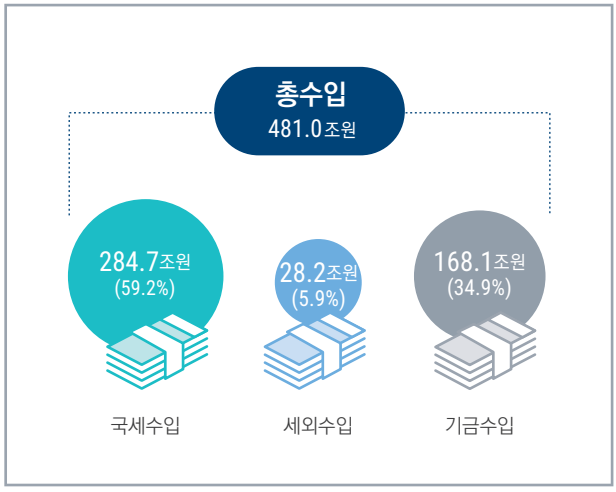
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,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,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,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,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이다.”

I. 2021년도 총수입 전망

2021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(483.0조원)보다 2.0조원 적은 481.0조원으로 전망

NABO는 2021년 국세수입을 284.7조원, 국세외수입은 196.3조원으로 전망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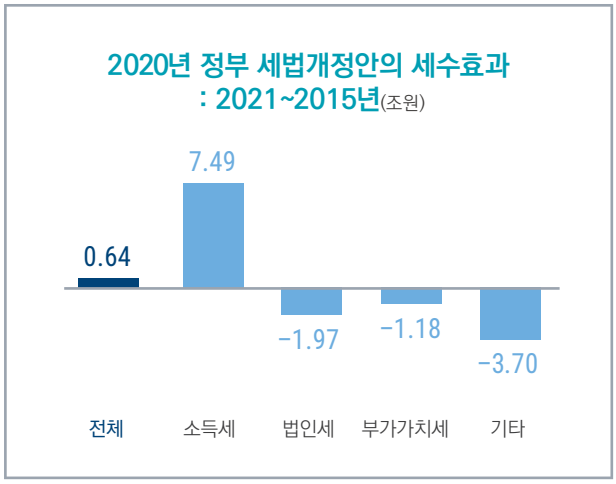
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,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(www.nabo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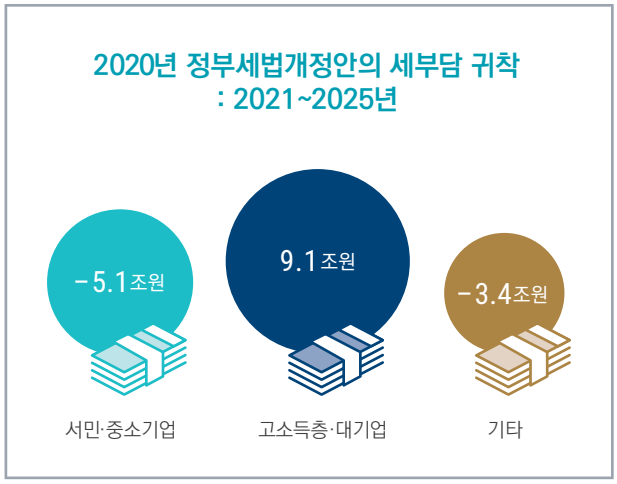
Ⅱ.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

1. 정부안의 세수효과

향후 5년간 6,396억원의 세수증가 예상
-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, 법인세·부가가치세·증권거래세 감소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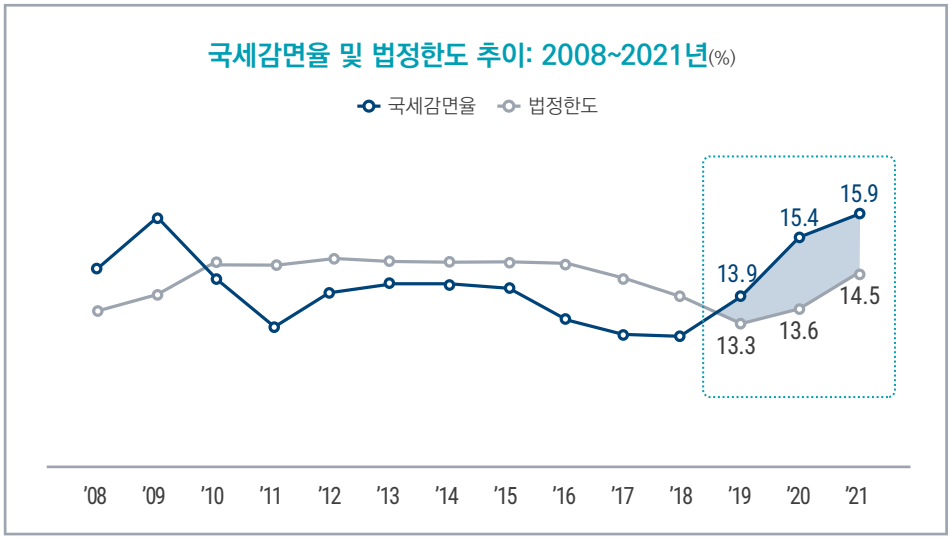
서민·중소기업의 세부담은 5년 누적 5.1조원 감소.
고소득층·대기업의 세부담은 9.1조원 증가 예상





2. 조세지출예산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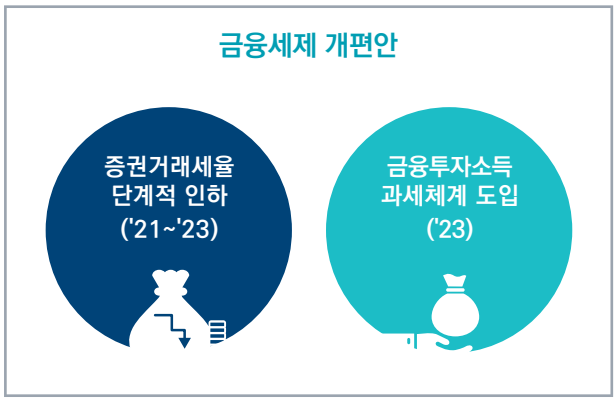
2021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(14.5%)를 1.4%p 초과하는 15.9%로 전망,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
- 2020~2021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조세지원 증가에 기인
-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비과세·감면 정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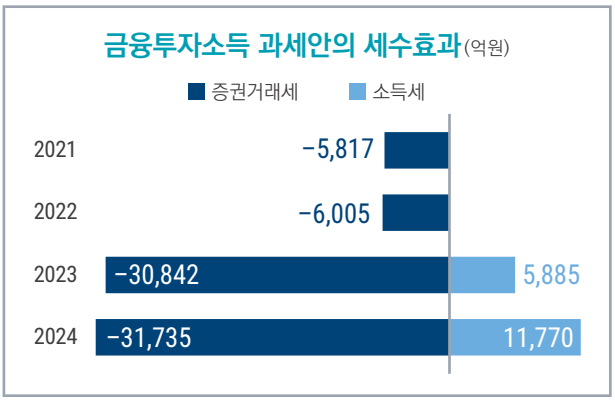


*국세감면율(%)={국세감면액/(국세감면액+국세수입총액)}x100

3. 금융세제 개편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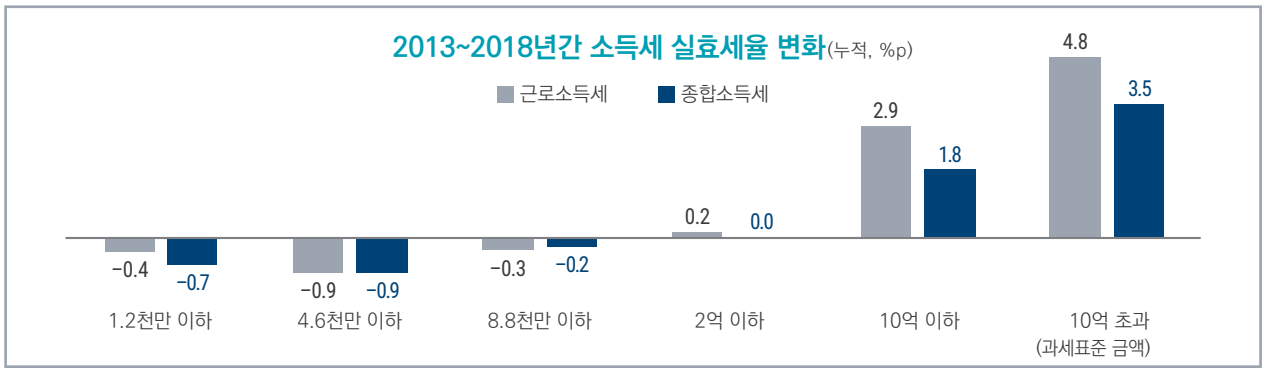
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마련, 2023년부터 전면과세 시행
- 자본이득 과세체계 토대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. 다만, 금융소득 및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 필요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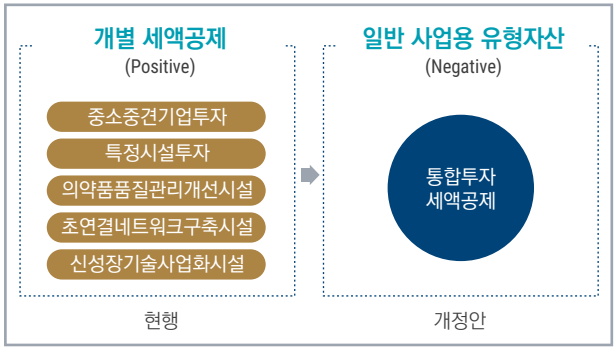
4.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

소득세 최고세율 인상(42%→45%)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의 유효세율은 근로소득세 0.6%p, 종합소득세 1.7%p 상승 전망
- 향후 세제개편 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속도, 높은 소득세 면세자('18년 38.9%) 비중 등이 고려될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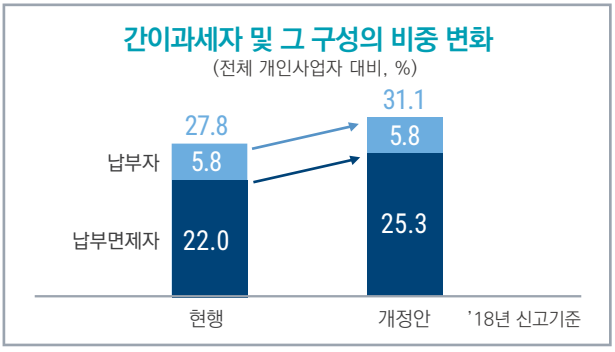
5.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

기존 투자지원세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 개편
-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후 성과관리 강화 필요



6.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

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 목적으로 운영
- 일반과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측면 및 제도취지 측면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 간이과세제도의 합리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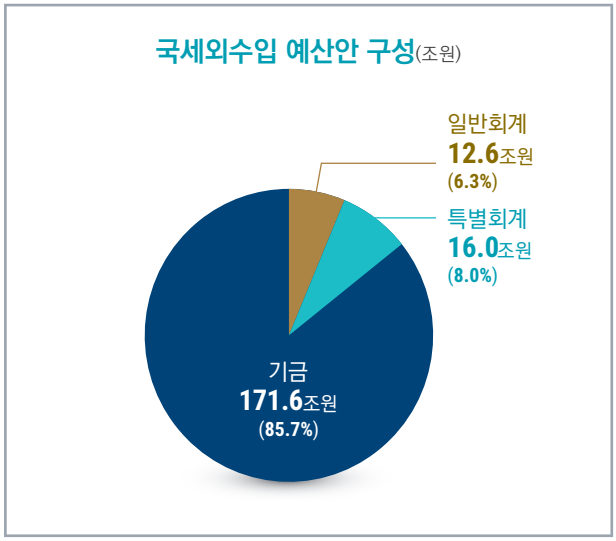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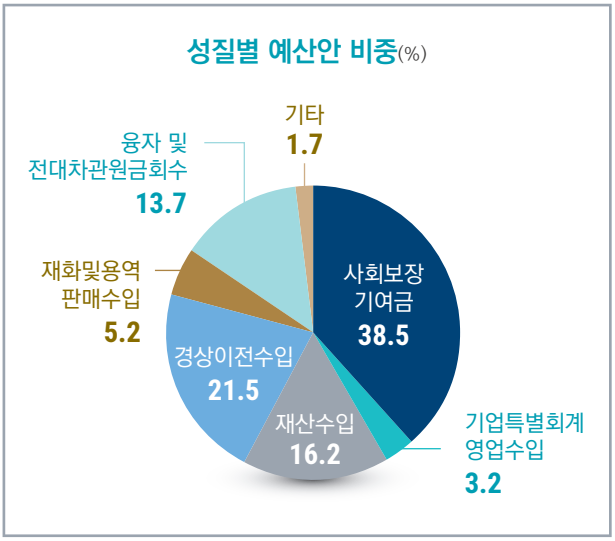
Ⅲ. 국세외수입 예산안 분석

1. 예산안 현황

2021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00.2조원으로, 일반회계 12.6조원(6.3%), 특별회계 16.0조원(8.0%), 기금 171.6조원(85.7%)으로 구성

- 성질별로는 사회보장기여금(38.5%), 경상이전수입(21.5%), 재산수입(16.2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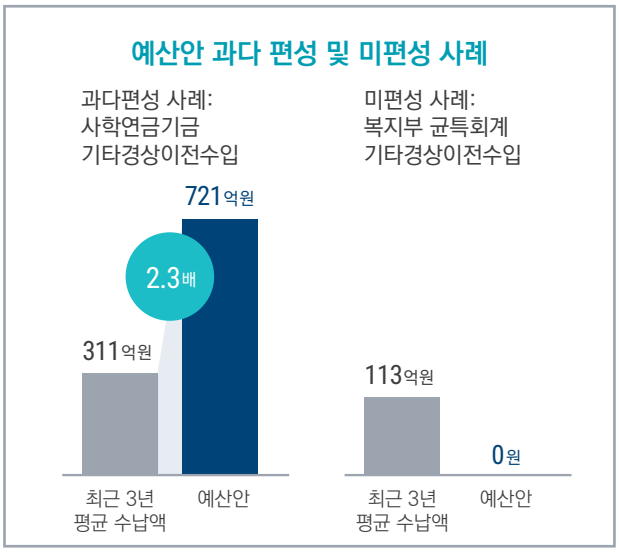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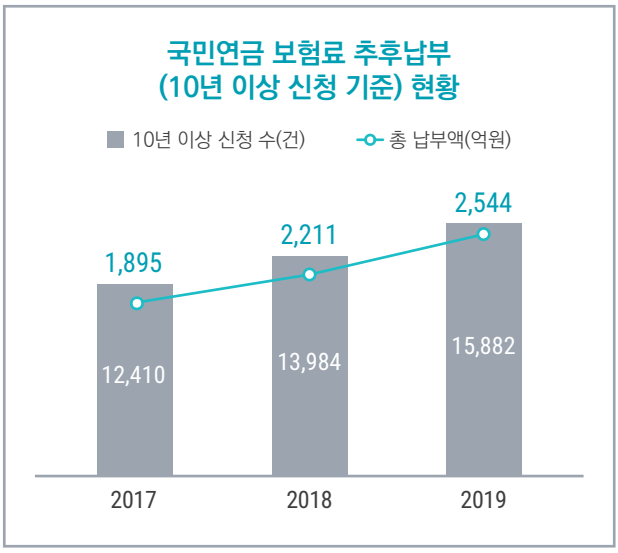


2. 주요 분석내용

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

- 일부 예산안은 수납실적과 비교할 때 과다 편성되었고 연례적 수납실적이 있음에도 미편성



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부작용 완화방안 모색 필요

-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여지 존재